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담론

진창남*

1. 시작하며

대학이 진정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유기체라면 지역사회라는 토양을 풍성하게 가꾸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말로는 대학개방을 외치면서도 실상 지역주민에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낱 '구두선'으로만 치달았던 대학의 초라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

원래 대학은 유럽에 있어 12세기에 '순수한 학도들의 자유로운 조합'으로 성립되어 學知에의 열정이야말로 대학의 본질을 이룬 지도이념이었으나 점차 구미의 교수방법인 '담론' 학풍의 부재와 인간정신의 뿌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의 결여로 인하여 지금의 대학은 전두엽이 결핍되어 전체를 보는 시력이 약화되고 대학의 아카데미즘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어감을 심각하

게 우려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이광주 2000, 441-453). 이는 곧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해아리지 못한 선부른 대학 개방이야말로 경계되어야 할 일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에서 지역의 '열린 대학'으로 변모할 때 영국의 계관사인 메이스필드가 예찬하였던 대학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정녕 될 수 없을 것인가.

'달한 대학도서관의 문을 열어라.'라고 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치는 '올리브'와 '올리버'는 "대학이 가진 공공성을 기본으로 대학도서관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독점 집단과 비독점 집단 간의 권력 차로 현재의 대학에서 독점하는 지식이 대학 밖의 사람들에 대항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지적 권력은 지식을 가진 특권층을 재생산하는 열쇠로 작용하고

* 제주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 사서, banya@jeju.ac.kr

있으므로 도서관이라는 물적 토대는 시민들에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과연 대학도서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며 대학도서관 개방은 꼭 필요한 것인가? 최근 개방에 관한 찬반 논쟁을 알아보고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개방 동향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2. 대학도서관 개방의 필요성과 논쟁

2.1 대학도서관 개방의 필요성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며 그 영향관계는 순환적이다. 우선 대학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받으며, 반면 대학은 그 전환과정인 교육·연구·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능수행을 통하여 산출물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곧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된다. 대학의 개방은 이와 같은 평생학습의 요구와 결부된 것이며 대학도서관의 공개도 국민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적극적인 논리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박준식·이애란 공역 1997, 45-46).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가 단지 교육의 측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기회를 통해 이웃을 넓히는 사회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지역내의 대학과 대학인의 공간은 그 지역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이는 곧,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방법으로 표출되고, 그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며 바로 대학도서관 존재의 이유일지도 모른다.

대학 도서관을 ‘대학의 심장부’라고 하지만 과

연 그러한가. 대학 내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 대학 밖의 지역사회와는 거리를 둔 ‘대학만을 위한 심장부’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고수하여 오지 않았던가.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지금 대학 도서관은 위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를 향해 빗장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대학의 개방은 대학평가와 때맞춰 일기 시작한 봄이다.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와 서열을 받기 위한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도 주안점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공개가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회적 요청이라는 수동적 논리가 아니라 대학 개방의 일환으로서 필연적인 논리이다. 대학의 개방은 대중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중화는 대학의 지역화와 관계가 있으며, 지역화는 도서관의 개방과 연계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개방은 대학의 사회봉사를 활성화하는 주요 수단이며,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윤희운 2002, 20).

2.2 대학도서관 개방의 찬반논쟁

우선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대학의 공공성을 고려해 개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 보자.

2.2.1 개방 찬성론

최근 대학도서관 개방 찬성론을 펼치고 있는 올리브 모임에 의하면,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대

학도서관은 일반인에게 개방해야하는 당위성 세 가지를 “첫째, 공공성을 띤 대학도서관의 장서, 시설, 인력 등은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 대학도서관에 축적된 엄청난 지식 정보원의 독점적 사용은 사회적으로 교육불평등을 낳기 때문이며, 셋째, 지식정보원을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할 때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 총량도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올리브 2003). 저작권문제로 대학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고급 자료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개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날카롭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연구작업은 존중돼야 하나 지적 재산권으로 인해 논문 등 전문서적을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어 대학만이 고급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 정부차원으로는 대학 도서관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드는 일반지원 사업비를 늘여야 할 것이며, 대학 도서관은 정보 통로를 개방할 자체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임김오주 2003).

2.2.2 개방 반대론

신문지상의 여론,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을 통하여 입을 모으고 있는 개방 반대론을 보면 도서관업무의 과부하, 대학당국의 재정 부담 가중, 재학생의 혜택 경감, 대학교육의 질 경감, 열람석 부족, 장서 관리의 어려움, 도난 사고, 중·고교생 출입으로 인한 면학 분위기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기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자는 요구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반박론을 펴는 입장이다. “대학 도서관의 폐쇄성으로 인해 도서관

을 통한 지식이 대학생들에 독점되고 있는 점과 대학도서관이 학문 연구의 장이 아닌 취업이나 고시 준비생을 위한 독서실로 전락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부분 개방’은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까지 도서관을 개방하면 안 그래도 비싼 등록금이 더 오를 것”이며,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하든, 영어공부를 하든 개인의 자유”라는 요지의 글이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임김오주 2003).

2.2.3 개방논쟁 종합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게 되면 장서 규모가 열악한 인근 공공도서관을 소외시킬 수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전문 자료 위주여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반대의 목소리와 대학도서관이야말로 최신의 학술자료를 다량으로 갖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개방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절충하여야 할 것인가. 최근 신문기사중 대학도서관 개방의 순조로움을 생생하게 묘사한 글이 돋보인다.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에 비해 더 적은 권수를 짧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빌리는 책과 주민이 빌려 가는 책의 종류와 분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책 부족을 겪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또한 지역민이 대학 개방을 반기워하며 거의 연체를 안 하고 즉각적으로 반납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꼽히고 있다(김창석 2003).

하지만 대학도서관 개방은 이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거쳐야 할 관문이 산재해 있다.

또한 도서관 개방 과정에서 절도,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은 캠퍼스 내에 경찰서가 배치되어 교내 순찰활동까지함으로써 도서관 주변의 무질서가 별로 문제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개방은 여러가지 보완책을 요구한다.

3. 대학도서관 개방의 현주소

3.1 국내 대학도서관의 개방 동향

대학도서관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2000년 서울대와 2001년 동국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대는 졸업생과 일반인에게 도서관 이용료를 받으려던 계획을 철회하였고 동국대 역시 이전까지 출입이 통제했던 졸업생을 출입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에서 도서관을 전면 개방한 대학은 거의 없지만 지방 소재 대학은 국·공립, 사립대를 막론하고 상당수가 개방에 앞장서고 있다(이왕구 2003). 회원 탈퇴시 반환하는 5만원의 예탁금을 받고 모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대 등 국립대를 비롯, 지역사립대학 최초로 UN 자료 기탁도서관(The Depository Library)지정 인정을 받은 동의대, 대구시청과 학술행정정보 교류협력을 체결한 계명대 등 사립대도 일반인에게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고 있다.

아직 개방하지 않은 대학 도서관들이 선뜻 개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해당 학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는 현실적 여건이 맞물려

있다. 도서관 측은 도서관 개방시 도서확충과 대출서비스 등에 관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도서 훼손·분실사고 등 대학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사고 대책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대학도서관들의 개방 수위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는 쪽이 대학들간의 대세다.

호남대의 경우 1996년부터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특별 열람증을 발급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동양대, 지역주민을 위한 사이버 대학도서관을 운영하는 고창기능대, 지역 주민에게 구입희망도서 대행서비스를 실시하는 창원대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마져 아끼지 않는 대구대, 또한 도서관을 현장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등은 지역주민과 가교역을 맡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2 국외 대학도서관의 개방 동향

3.2.1 미국 대학도서관

미국 지역 대학도서관의 대부분은 이용자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도서관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으로 자료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서관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문헌을 제공한다. 유모차나 아이들이 뛰노는 풍경이 낯설지 않으며 열람실은 거의 없고 공간이 있는 곳에는 거대한 서가가 즐비하다.

오하이오 주립대학도서관은 여타 미국의 지방대학을 대표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오하이오주에 유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날/책의 날이면 지역 내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2개 국어로 된 그림책 기증, 캔디 선물, 작가상 수상, 이야기꾼의 지역설화 특강 등 다양한 이벤트로 대학문화를 체험케 하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축제로 주목을 끌고 있는 남부 플로리다주 탐파(Tampa)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 먼 발치의 상아탑이 아닌 지역주민의 친구이자 생애학습장임을 홍보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arol Ann Borchert 2002, 7-9).

3.2.2 독일 대학도서관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소장된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대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이 교양·문화적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도서관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에게 이용을 개방한다.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행사 역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수많은 장서와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며 또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원거리 대출제도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은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자료의 교환이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학생의 면학용 지정도서 대출은 어디에서나 될 수 있다(김교갑 1996, 88).

3.2.3 일본 대학도서관

일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공개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도서관의 해방」이 강조되어 일찍부터 대학관계자는 물론 지역 주민 공개가 시도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대학도서관 공개의 흐름이 새롭게 변모되었다. 도서관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외자 서비스 공개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공공도서관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참여에 의해 상호간 장서 제공, 둘째는 인터넷을 통한 대학도서관의 장서 공개이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의 사례는 1999년(평성11년) 6월, 아쓰기시(厚木市)와 시내의 대학이 협력하여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쓰기시·대학교류대화회(厚木市·大學交流懇話會)」가 발족되고 대학도서관의 시민이용을 위해서 주로 자료의 열람, 복사, 혹은 대출의 대부분을 시도하고 있는 “아쓰기방식(厚木方式とは)”이다. 각 부회의 구성원에 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아쓰기방식(厚木方式とは)”이라고 하고 있다. 이 방식의 특이한 점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 의한 분실은 대출한 사람이 대학 책임하에 있는 경우는 대학이 변상하며,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시립중앙도서관에 책임을 물어 처리하는 점이다(藤澤 みどり 2001, 146-152).

4. 대학도서관 개방의 활성화 방안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고유의 기능과는 구분하여 이용자층, 이용대상자료, 이용방법 등을 감안한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한가. 교

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중 전담인력 부족이 47.4%로 가장 높았다. 열람실 부족과 도서 부족은 각각 31.2%와 18.3%로 그 다음 순위였다. 단순한 책 보관소나 독서실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를 갖춘 문화공간의 역할은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력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나희덕 2003).

이제 대학도서관 지역 주민 개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대학구성원도 지역주민의 한사람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장 활용을 위하여 개방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대학구성원 모두가 개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대학당국의 인적·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개방 의지와 철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둘째, 대학도서관 개방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의 부속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전환되어야 하고, 열람실 기능중심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핵심센터로 변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 개방 지침, 규정은 명문화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지역주민 봉사에 대한 도서관인의 의식 개혁이 중요하며, 또한 대학종합평가기준 가운데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의 대학도서관 평가영역에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 개방의 적정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요금, 개방시간의 범위는 대학의 여건과 도서관 이용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화 또는 신축성 있게 할 부분이라고 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소장도서대출에서 보유시설 이용 등에 이르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항목은 심리적, 시기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수요자 만족도를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대학도서관 개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용자 서비스의 범위가 지역주민까지 확대되는 만큼 장서, 시설 장비, 인력의 확충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내부이용자는 물론 외부이용자 어느 한쪽에도 만족스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다섯째, 대학도서관 개방에 따른 이행 전략이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자료의 특화와 국내외 대학도서관간 협력망,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의 확대, 산·학·연의 연계 특히 전자자료에 대한 자료 공유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 해결이 절실하며 최근 중요성이 부가되고 있는 도서관 PR과 정보소양(Information Literacy)교육은 빠뜨릴 수 없다. 대학 내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독서지도, 영화 상영회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고려할만하며 대학도서관 이용에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의 이용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표준화의 관점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다(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 위원회 편 2000, 19-25).

5. 마치며

대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소산이며 반영이다. 대학도서관의 개방도 그 어느 때 보다 뚜렷한 목표를 필요로 하며 지역공동체의 진정한 공

공성 내지 공공선의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치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부부가 매일 같이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자료수집과 조사를 거쳐 특효약을 발명해낸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로렌조 오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대학도서관 개방에 선두주자이어야 할 사서는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물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구조적 물음을 제기하는 지적정신이 요구된다. 지역정보서비스의 거점대학 구성원이기 전에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 자원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외의 대학도서관처럼 지역주민과 어울림의 축제 마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도래는 우리에게는 요원한 미래의 일일까.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니므로 지역주민 서비스가 아닌 대학 구성원의 서비스에 충실 하지는 지난 생각들은 훌훌 털어 버리고 그간 대학도서관의 '달려왔던 관념의 틀'을 깨부수고 나와 바로 지금 '열린 대학도서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참고문헌〉

- 김교갑. 1996.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서울 : 집문당.
- 김창석. 2003. "대학 도서관 개방은 대세다". 한겨레21. 2003. 6. 12.
- 나희덕. 2003. "익지않은 도서관". 『문화일보』, 2003. 5. 2.
- 박준식. 1997. "정보안내서비스의 이해". 『국립대학도서관보』, 15: 7.
- _____ · 이에란 공역(1997). 『대학도서관의 관리와 운영』.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올리브. 2003.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세 가지 이유". [cited 2003. 6. 19]. <<http://www.kujachi.net>>.
- 윤희윤. 2002.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 위원회 편. 2000.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도서관운동연구회 역. 서울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 이광주. 2000. "대학의 이념을 위하여".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 서울: 한길사.
- 이왕구. 2003.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찬반 논쟁". 한국일보, 2003. 4. 21.
- 임김오주. 2003. "대학도서관 개방 찬반논쟁 뜨거워". [cited 2003. 6.19]. <<http://www.unews.co.kr/modules/news/view.php?id=10232>>.
- Carol Ann Borchert. 2002. "USF Tampa Library Reaches Out to Celebrate Dia de los Niños/Dia de los Libros." *Florida Libraries*, 45(2): 7-9.
- 藤澤 みどり. 2001. "大學圖書館と公共圖書館の相互貸借の事例-厚木方式とは." 『現代の圖書館』. 日本圖書館協會現代の圖書館編纂委員會, 39(3): 146-152.